

전통의식 함양을 위한 WEB기반 족보교육 시스템의 개발

이인섭*, 이재인**
창원사화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ds5dlj@orgio.net*, jilee@cue.ac.kr**

Development of the WEB based genealogy education system for a traditional ceremony cultivation

in-seob Lee*, jae-in lee**
shawa elementary school, Computer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s5dlj@orgio.net*, jilee@cue.ac.kr**

요 약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의 사회로 대표되는 요즘, 사회의 발달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고 있으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속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에 전통의식 함양을 위한 단원 및 활동을 도입하여 전통문화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인 개인의 뿌리를 찾는 족보 교육과 더불어 촌수 및 호칭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기반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아동들과 친밀도가 높은 WEB기반 학습을 통하여 족보에 대한 이해 및 친족관계에 대하여 학습단계별로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족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전통의식이 함양 될 수 있도록 한다.

1. 서 론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예절교육이 사라져 버렸고, 오로지 지식 한가지만 머릿속에 넣는 절름말이 교육 풍토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제 '나'(개인)만 남았고, '우리'가 사라졌다. '우리'가 사라짐으로써 이웃도 일가 친척도 멀어졌다.[1]

현대 사회를 일컬어 흔히 가치 혼란의 시대라고도 한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복잡성과 고도의 가변성에 기인한다. 극심한 인구 이동과 도시 집중 경향으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정적 유대가 약화되고, 생각 체계의 기계화와 조직 사회로서의 경직성, 그리고 대중 사회의 비인격성은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 사회 구

조의 복잡성은 다양한 가치관을 낳고 있으므로 사회 집단간의 통합을 기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의 기능적 전문성의 분화는 인격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2]

전통 문화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아름다운 가풍과 전통,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어버리기 쉬운 나의 뿌리, 친척과의 촌수와 호칭 등은 현재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에서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하여 아동이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생들은 하이퍼미디어 세대로 문자 세대인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귀로만 들은 정보의 2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의 50%, 말한 정보의 80%, 말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정보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이것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수 기법이 학습 과정과 기억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

따라서 인터넷 활용이 생활의 일부가 된 현대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인 족보에 대한 이해와 친족간의 촌수와 호칭 등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웹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친족과의 관계 및 호칭에서부터 족보의 의미, 유래, 종류를 알고 자신의 뿌리를 직접 검색해 보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의 컴퓨터 보유율 및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컴퓨터를 통한 학습의 사전 의식 조사를 진행한다.

둘째, 현행 교육 과정 내 족보 / 촌수 관련 내용을 분석한 후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셋째, WEB기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도덕 교과와 족보교육

도덕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학생들의 전 생활 영역, 곧 개인으로서의 생활, 가정·이웃·학교와 같은 근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보다 넓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및 한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근대사회와 탈 근대화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가져왔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친척간의 호칭과 촌수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도 요소는 '친척끼리의 예절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기'로서 친척의 뜻과 친척간의 예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친척간의 예절 생활에 대한 반성 및 화목한 생활에 대한 실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척의 의미와 관계, 지켜야 할 예절을 이해시키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친척의 고마움을 느끼며 자심의 행동을 반성해 보는 것은 물론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도록 하는데 에 지도의 핵심이 있다.

2.2 족보에 대한 고찰

1) 성, 씨, 족의 유래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성씨의 칭호(稱謂)는 한국 고유의 전래적 족칭이 있었으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중국(漢唐)으로부터 문화적 내지 정치적 사유로 수입되어 한자화(漢字化) 또는 한성화(漢姓化)되어 오늘날 불리워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고유 전래의 씨족명칭과 중국식 성의 칭호(姓稱)와는 구별하고 있다.

가. 성(姓)이란 글(字)의 유래

씨(氏)의 원의(原義)는 출()자와 상호 통하고 가녀(家女)가 출가하여 출생한 男女 및 孫을 생(甥)이라고 부른다. 씨족 특질의 점차로 소멸함에 따라 출자(出自)를 표시한 명호(名號)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필경 姓은 부계적 혈족의 표시라고 한다. 즉 성(姓)의 본의(本義)를 부계적(父系的) 혈족(血族)의 표식(標識)이라고 한다. 중국의 성칭(姓稱)은 부계씨족(父系氏族)의 혈족(血族)을 표시하는 명호(名號)에서 시작된 것이다.

나. 씨(氏)의 기원

고염무(顧炎武)의 所說에 의하면 <氏>란

卿大夫에서 생긴 것이요 웅이나 제후에게는 氏가 없고, 王侯 의 子孫이나 公子, 公孫까지도 씨가 없었다고 한다. 氏가 생긴 것은 봉건적 영토가 확립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씨의 칭호는 대개 地名에서 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아 姓은 혈족적(血族的) 씨족제의 산물이고, 씨<氏>는 영토적 씨족제의 산물로 보고 있다.

다. 족보란

족보는 일가(一家)의 역사를 표시한 것이요, 가계(家系)의 연속(連續)을 실증하는 것이므로, 가계의 영속(永續)을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 계보의 기록을 정중(鄭重)히 보존하는 것은 문중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고 있으며, 더욱이 그 선조 인물 중에서 국가 사회에 많은 공적을 남기어 세상의 숭경(崇敬)을 받기에 명망 있는 인물이 있을 때는 그 유업(遺業)을 찬양(讚仰)하고 스스로 그 후예인 것을 과시(誇示)하는 것이 후손들의 긍지로 중요시하였다.

족보는 한말로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家系)를 존속(存續)하며, 동족(同族)을 단결(團結)하고, 세족(世族)의 번세(繁細)를 정(定)하며, 소목(昭穆)을 변(辨)하는 등 가족집단(家族集團)의 본질(本質)을 여실(如實)히 구체현(具體現)한 것이다.

라. 족보의 기원(由來)

원래(原來) 족보의 기원(起源)은 중국의 육조(六朝: 吳, 東晉, 宋, 齊, 梁, 陳)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북송(北宋)의 대 문장가인 구양수(歐陽修)와 소순(蘇洵)과 그의 아들 식(軾, 轍)이 편찬된 것이 가장 잘된 족보의 모범이라고 칭하며 이를 일명 소보(蘇譜)라고도 한다. 족보는 나라에 있어서 사승(史乘)과 비등(比等)한 것이며, 승조(崇祖), 경족(敬族), 수족(收族)의 의(義)를 명백히 한 것이다

2) 족보의 종류

가. 족보(族譜)

족보는 관향(貫鄉)의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이 성격 내용은 가문의 역사를 의미하고 가문 씨족의 연결을 실증한 것으로 족보란 말은 모든 보첩의 대명사(代名詞)로 쓰이는 말이다.

족보란 말 이외로 계보(系譜),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세지(世誌), 가승(家乘: 계도(系圖)의 외에 선조의 전설, 사항에 관한 기록을 수집(蒐集)한 것을 지시하는 것), 가첩(家牒: 동족 전부를 수록하지 않고 자기일가 직계(直系)에 한하여 발취족록(拔取抄錄)한 세계표(世系表: 대개 한 장의 단첩식(單疊式)으로 되어 있음), 가보(家譜), 성보(姓譜)라는 말로도 통한다.

나. 가승(家乘)

가승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편집하되 우선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직계존속(直系尊屬)과 비속(卑屬)까지 각각 휘자(諱字) 및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의 기본자료이다 이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다. 파보(派譜)

파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각 휘자(諱字)와 사적(事蹟)을 수록한 족보를 말한다.

라. 세보(世譜)

세보는 두과 이상의 파족(派族)이 동보로 제작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派譜)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하여 세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 계보(系譜)

계보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휘자(諱字)만을 계통적으로 표시된 도표로서 가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한 부분만이 작성되어도 이 형식의 보첩(譜牒)을 계보(系譜)라 한다.

바. 대동보(大同譜)

대동보란 같은 비조(鼻祖)밑에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동보(同譜)로 종합 편비된 보첩을 말하며, 본관은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종족이 통합해서 동보(同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대동보라 한다.

사. 가보(家譜) / 가첩(家牒)

가보(家譜)나 가첩(家牒)이란 말은 편찬된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서 자기 중심 위주로 작성하여 별도로 소장되어 있는 보첩을 말한다.

3) 족보용어

가. 본관(本貫)

본관을 관향(貫鄉)또는 관적(貫籍)이라고도 칭한다. 일반적으로 시조(始祖)의 출신지(出身地)나 시조(始祖)의 정착(定着) 세거지(世居地)를 말한다. 각 성씨의 씨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원(淵源) 내지 연혁(沿革)을 살펴보면 국가에 공훈(功勳)이 있어 00백(伯) 또는 00군(君)이 봉(封)해졌으므로 봉군(封君)받은 지명(地名: 食邑地)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가문에서는 시조로부터 누대에 걸쳐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관이 필요로 하게 된다.

나. 시조(始祖)

시조란 이론상으로는 각 종족의 제일 초대 선조로서 각 성시는 문헌상으로 최초로 나타난 각 종족의 첫번째 조상을 시조로 칭한다.

다. 비조(鼻祖)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시조 이전에 선계(先系)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를 비조(鼻祖)라고도 표현한다.

라. 중시조(中始祖)

始祖 이외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말한다.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로 추존(推尊)하는 것인데 이는 종중의 공론에 따라 인정하며, 이는 자파 단독만의 결정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대종회의 결의에 따른다.

마. 선계(先系)

선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뜻한다.

사. 세(世)와 대(代)

시조를 일세(一世)로 하며 차례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세이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례(次例)를 따지는 것이 대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자의 차이가 世로는 2세이지만 代로는 1대이다. 시조로부터 30대 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29대조이고 시조에게는 29대 손이 해당된다.

아. 선대(先代)

본래 선대는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보첩(譜牒)에 있어서 선대(先代)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있는 선계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말이다.

자.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현재 한국사람의 이름은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아명(兒名), 관례(冠禮)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이고 다음에는 보첩에 등재하는 행명(行名)이 있었다. 관명은 관례 시에 주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예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족석에서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다.

차. 호칭방법

웃어른의 먼자(名字)를 말할 때에 생존하신 분에게는 함자(銜字)라 부르며, 이미 작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휘자(諱字)라고 부르며, 이름자

를 부를 때에는 글자 사이마다 "자(字)"자를 넣어서 부른다.

000氏: 姓 또는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00선생: 성, 성명 또는 아호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00공: 남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및 관위(官位) 밑에 붙이는 말이다.

00옹(翁): 남자 노인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00장(丈): 남자의 직함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로써 보통 노인장(老人丈), 존장(尊丈), 형장(兄丈)등이다

카. 향렬(行列)과 향렬자(行列字)

향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계통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이는 그 문중만이 기지는 고유(固有)의 특징이며 율법이다. 향렬자는 각 가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게 된다.

타. 대종회(大宗會)

종중, 종친간의 기관으로서 대종회가 조직 운영하는바 이를 대종 종약소(大宗宗約所), 대종회(大宗會), 대동종약원(大同宗約院)를 조직하는 바, 이들 조직은 동일(同一) 시조(始祖)에서 나온 남계 혈족중의 남자인 정원으로 구성한다.

파. 종가(宗家)

종중에는 반드시 종손이 있는데 부락 또는 동족(同族) 내지파벌(派族間)에 있어서 최존 선조(最尊先祖)의 가독(家督) 상속자로서 가묘(家廟)를 가지고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宗孫)의 집을 종가(宗家), 내지 종가(宗家)집이라 칭한다.

하. 종회(宗會:門會)

도유사 내지 족장이 종무를 집행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종회를 개최하여 문중의 제반사

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종회는 매년 제향 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유사가 의제를 준비하여 임시 회의를 수집한다.

거. 시향(時享)

시향은 시제(時祭)와 공통된 말로 문중의 대제(大祭)이다. 문중별로 정해진 날에 시행을 지내는바 대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중 정하여진 날(初丁, 中丁, 末丁)들 정하여진 날에 산소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祭祀)를 말하기도 하며,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산소 또는 재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時祀라고도 하며 제사는 일정한 의식(일명 홀기:笏記)에 따라 행사하게 된다.

너. 기제(忌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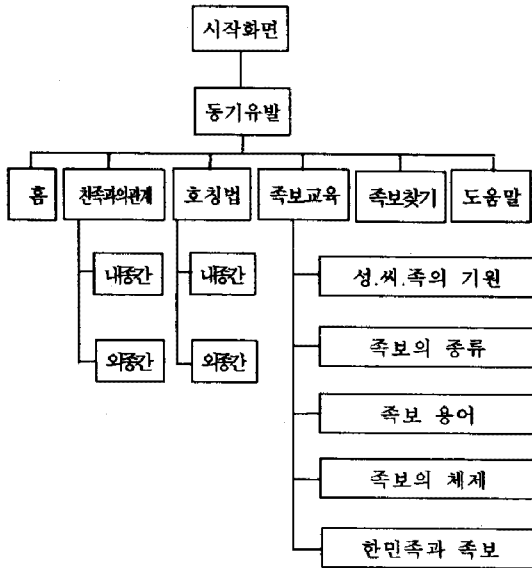
기제는 5대이하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에게 조상의 亡命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근래에는 제례의 간소화에 따라 합동으로 時享(時祭, 時祀)이나 기제를 모시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3. 초등학교 족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시스템의 설계

시스템의 설계에 앞서 각종 연구 논문 사례 및 기존 선행 연구물들을 분석한 결과 족보 관련 학술적 정리 사이트 및 책자들은 다수 존재하였으나 족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용 사이트 및 족보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학술적 정리 사이트를 바탕으로 족보 교육에 관한 교수-학습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1 족보교육 교수 학습 시스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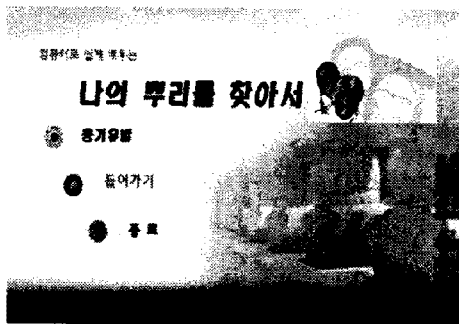
메뉴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시작 화면 후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소개되고, 주요 메뉴는 홈, 친족과의 관계(촌수), 호칭법, 족보교육, 나의 족보찾기, 도움말의 6가지로 구성되며 각 메뉴별 세부 메뉴로 구성하였다.



<그림1> 메뉴의 구조

1) 각 메뉴별 세부 구조

가. 시작



[그림 2] 시작화면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음악이 흐르고 학습 타이틀이 제시된다. 애니메이션은 전통 문양 및 전통 족보의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배경 음악은 전통 국악을 넣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면 하단의 들어가기 단추를 클릭하면 동기유발 화면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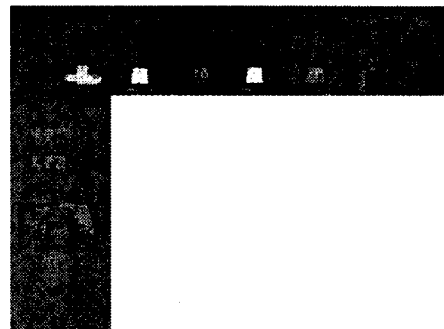
나. HOME

화면 구성은 위, 좌, 우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하였으며 화면의 위쪽에 주 메뉴 6개를 배치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주제를 학습자의 흥미에 맞게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였고 왼쪽에는 각 메뉴에 대한 하위 메뉴를 두어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동기유발

명절, 친족과의 모임시 친척간의 호칭 방법에 대한 의문점을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동기를 자연스럽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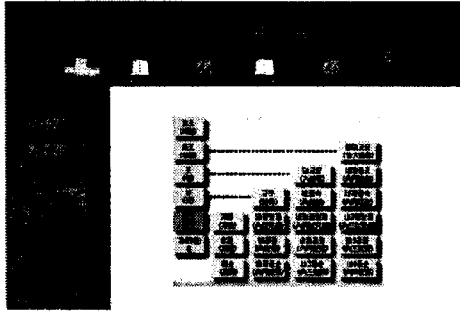
라. 주 메뉴 화면



[그림 3] 메뉴화면

기본 메뉴인 홈, 친족과의 관계, 호칭법, 족보교육, 족보 찾기, 도움말의 6개 메뉴가 위쪽 프레임에 배치되며 각 메뉴별 클릭 시 하위의 세부 메뉴가 좌측에 제시된다. 주 메뉴는 항상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하위 세부메뉴는 각 주 메뉴를 클릭 시 왼쪽에 주 메뉴 내용과 관련 지어 나타나게 된다.

마. 친족과의 관계 화면



[그림 4] 친족과의 관계화면

친족과의 관계 메뉴는 주로 친족간의 계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메뉴로 친족을 대할시 누구는 나와 몇촌인가? 나와 사촌동생은 누구의 아들인가?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며 그림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위 세부 메뉴로는 내종간, 외종간을 구분 지어 제시하였다.

바. 호칭법 화면

호칭법에는 내가 어른을 부를 때, 어른이 나를 부를 때, 어른에게 나를 표현할 때의 3가지 경우에 따라 각 대상별로 예의를 갖추어 호칭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하위세부 메뉴 역시 내종간, 외종간으로 구분하였다.

사. 족보교육

족보교육 메뉴는 족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다루는 메뉴로서 총 5개의 세부메뉴로 구성된다. 각 세부 메뉴별 내용은 문자, 그림과 함께 음성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① 성. 씨. 족의 기원

성. 씨. 족의 기원 메뉴는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성이란 글자의 유래부터 중국식 성의 칭호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초등교육의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상식적인 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② 족보의 종류

족보의 종류 메뉴에서는 족보의 기본 개념,

보첩, 세보, 파보, 계보 등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며 각 설명에 따르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③ 족보용어

족보용어 메뉴에서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본관, 시조, 세와대, 대종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④ 족보의 체계

족보에 기록된 내용은 족보의 조직이나 종류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편집 제작에 일정한 원칙과 공통된 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요소를 분석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준다.

⑤ 한민족과 족보

한민족과 족보의 메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의 연혁부터 조선왕조의 세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아. 족보 찾기

족보 찾기 메뉴는 기존 Web site에서 D/B화 된 자료를 링크시켜 성씨, 본관별 족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검색과 관련 종친회 사이트를 연결시켜 사진의 뿌리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 봄으로써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종친에 대한 소속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도움말

도움말 메뉴는 학습도중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게시판이나 E-mail을 통하여 질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 답변해 줌으로써 WEB 기반 교육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전통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층

법, 호칭법 및 자신의 뿌리인 족보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의 딱딱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친족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이 시스템에서의 학습 단계는 친척간의 촌수 바로 알기, 친족간의 호칭 방법, 족보에 대한 기본 개념 알기, 나의 족보 찾기의 4가지 학습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친족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알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어른을 부르는 말, 자신을 낮추는 말 같은 호칭법을 익힘으로서 예의바른 청소년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족보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우리 조상의 전통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뿌리를 정확히 알아 감으로써 가문 및 전통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수, 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수월해 지며 아동들은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통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움 풍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구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현을 한 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는 설계에 맞추어 구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학습 현장에 활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5. 참고 문헌

- [1]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 [2] 교육인적자원부, “4학년 초등학교 도덕 교사용 지도서”, 2003
- [3] 경상남도교육청, “교사 ICT활용 교육 연수교재”,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1
- [4] 엄기원, 정화순 공저, 청소년의 참예절, 예문당, 2001
- [5] 한국의 족보, www.rootskorea.net
- [6] 뿌리를 찾아서 www.rootinfo.co.kr